GICB 2017

2017 광주비엔날레 Gwangju Biennale 아카이브 Archive

Special Exhibition in Korea GICB2017

기록

삶을 말하다

Story_

Telling about Life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스테파니 루스 Stephanie Ro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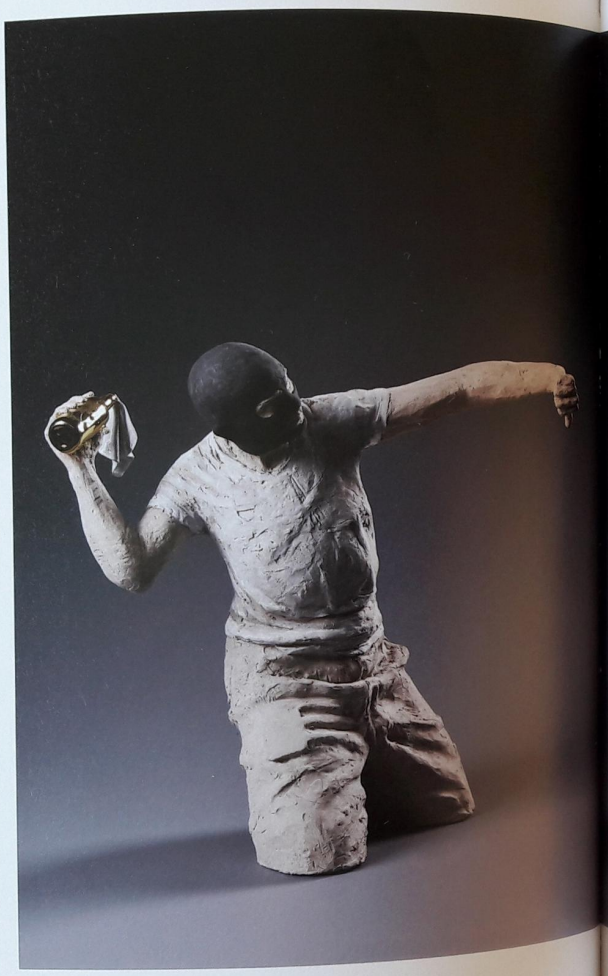
Born in 1971, Germany

우리는 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이미지와 우리 자신에게 갖는 이미지들 사이에서 존재한다. 우리는 결코 이러한 정의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서 스스로의 자아에 대해 느끼는 감각들은 자신에 대한 상호 모순적인 관념 속에서 애매하게 떠돌게 된다. _스테파니 루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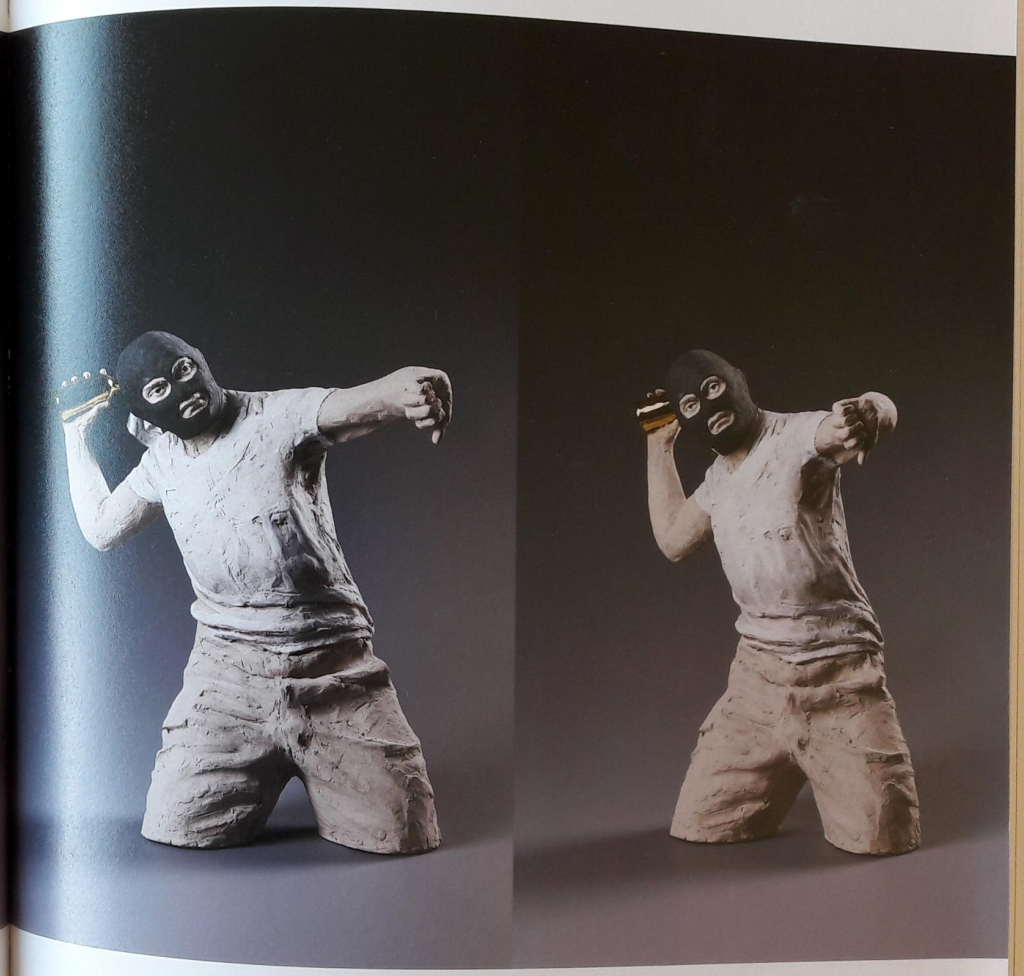
독일 출신의 작가 스테파니 루스는 자신과 타인들을 관찰하고 이로부터 이미지를 끌어내어 소형 인물상을 제작한다. 그는 오늘날의 패션과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인간 개개인의 모습을 포착하고 이를 하나의 원형으로 제시한다. 이를 통하여 사회적 본성, 문화적 존재로서 인간이 갖는 간단히 정의할 수 없는 미묘한 위치와 역할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러하기에 그 인물상들은 단순한 개개인의 모습이 아니라 작가가 바라보는 세상의 반영이며 현대인의 상징적 초상이기도 하다.

We are oscillating between social expectations and our own images of ourselves. As cultural beings, we are never free from these definitions. So our sense of ourselves is wandering between sometimes contradictory ideas of ourselves. _Stephanie Roos

This German-born ceramic artist has been producing small, clay human figurines that depict images distilled from the artist's observations of herself and others. By capturing fashion trends as well as individuals in the act of fulfilling their given roles in society, Roos' figurines effectively reflect the social instincts, significance, and roles of humans as cultural beings, over and beyond mere individuals. Her human figurines are therefore not representations of isolated individuals, but reflections on the modern world, where diverse individuals mingle and coexist togeth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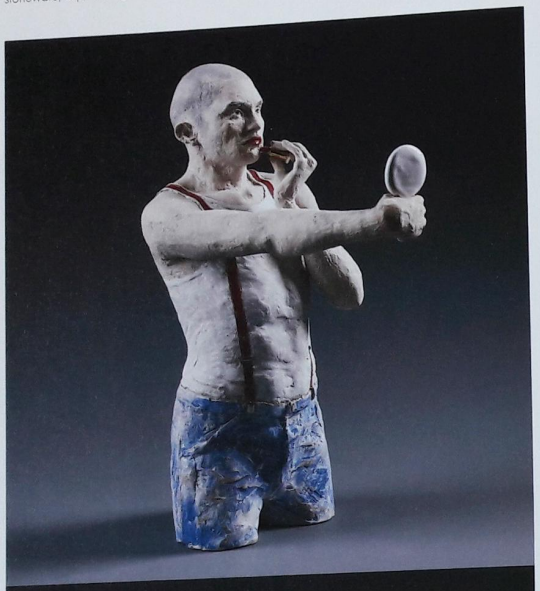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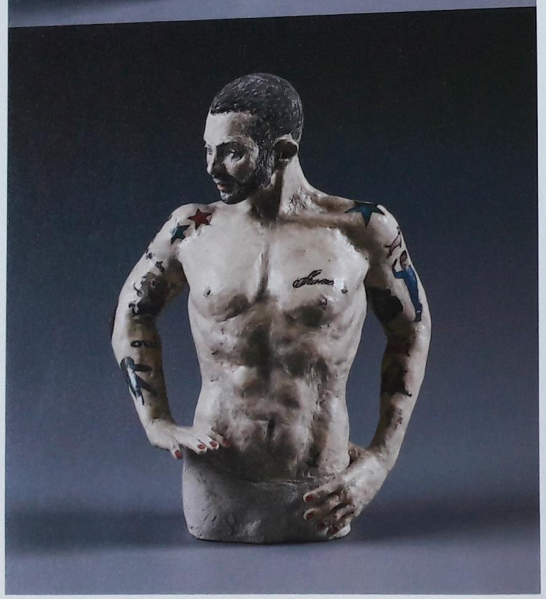
화염병 Classic Molotow
2016
27×12×30cm
석기질점토, 슬립, 하화안료, 유약, 수금
stoneware, slip, underglaze color, glaze, bright gold



백인우월주의 I White Power I
2016
15×22×33cm
석기질점토, 슬립, 하회안료, 유약, 수금, 백금
stoneware, slip, underglaze color, glaze, gold, platinum

현대의 전사들 Modern Warrior
2016
17×13×27cm
석기질점토, 슬립, 하회안료, 유약, 전사
stoneware, slip, underglaze color, glaze, decals





거울 속에서 In the Mirror
2015
40×20×66cm, 30×71cm(mirror)
석기질점토, 슬립, 하회안료, 산화물, 거울
stoneware, slip, underglaze color, oxides, mirror